

영 김 등 한국계 의원들,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 재발의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40지구), 앤디 김(민주, 뉴저지 3지구) 의원 등 한국계 미 연방 하원의원 4명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11월22일 '김치의 날' 로 지정하자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11일 '뉴스 1'에 따르면 영 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의안 재발의 소식을 전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하원 영 김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인 앤디 김과 미셸 박스틸(공화·캘리포니아 48지구), 매릴린 스트리클랜드(민주·워싱턴 10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김치는 2000년 전 삼국시대에 시작된 오래되고 풍부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 재발의를 주도한 영 김 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앤디 김, 미셸 박스틸,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의원(왼쪽부터). 사진=각 의원 트위터

결의안은 또, 2013년 유네스코가 한국의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한 것을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김치 관련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김치의 원조국인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치는 한 세기 이상 전에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이 도착한 이후 미국에서 커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요리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며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김치는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져온 풍부한 문화와 요리, 역사적 전통의 한 예일 뿐"이라며 "자랑스러운 1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결의안을 소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은 지난해 7월 캐롤린 델로니 전 하원의원(민주) 주도로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은 2020년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 사랑 주립공원 ... 한글 입간판에 '무궁화 동산'도 조성

지난 5일 메릴랜드주의 최대 도시 볼티모어에 위치한 '파타스콧 밸리' 주립공원에 다섯 그루의 무궁화나무가 심어졌다. 한글 홍보와 보급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아리랑 USA공동체'라는 단체가 식목일에 맞춰 심은 것이다.

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심어진 무궁화는 다섯 그루 밖에 되지는 않지만 '무궁화 동산'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아리랑USA공동체 장두석 회장은 "식목일에 맞춰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다섯 그루밖에 심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궁화 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는 이 공원 관리 소장인 제이미 페트루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 공원 입구에는 이날도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한글 문구 입간판이 서 있었다. 1.5미터 크기의 이 입간판에는 지난해부터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한글 인사 글씨가 내걸리고 있다. 페트루시 소장이 손수 만든 철판에 자신이 직접 분필로 쓴 글씨다. "뽀



▲ 한글 인사를 '그린' 제이미 페트루시 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아리랑USA공동체 장두석 회장(왼쪽), 사진=아리랑USA공동체

다'기 보다는 '그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는 아직 한글을 모른다.

페트루시 소장은 "공원 반경 5마일 이내에 한국계 미국인 1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한국인들을 대표하고 싶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원은

메릴랜드주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유명한 엘리콧시티와 접해 있다.

"10명씩, 15명씩 등산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매일 보다보니 그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싫지만 이렇게 친절한 민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공원을 찾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한국의 국경일도 챙기기로 했다. 그는 아리랑USA공동체로부터 한국의 공휴일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올해 삼일절에는 직접 기념 배지를 만들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공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간 유대관계가 깊어진 것을 보고 주정부도 흔쾌히 '무궁화 동산' 조성을 허락했다.

"공원 앞 도로로는 앞으로 한국 길(Korean Way) 같은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Dr. Soung Hoon Cho
DDS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